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 정보추구의 구조와 과정 -

Pregnant Women's Information Seeking Experience : Structure and Process of Information Seeking

김 갑 선(Kapsoo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논의 |
| 2. 연구방법 및 절차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결과 | |

초 록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임신부들의 정보추구경험과 관련된 개념 및 이들 개념들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하여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구조와 과정을 밝힌 연구이다. 이론적 표집에 의해 16명의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수행하였고, 면담데이터는 근거이론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발생원인은 임신의 수용으로 나타났다. 임신부들은 지각된 불안과 궁급증의 맥락에서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전 진단데이터 추구하기, 표준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와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의 작용 상호작용적 정보추구 전략을 취하였으며, 비교하기, 맥락화 하기, 확인하기의 정보추구의 과정들을 거쳐 갔다. 이때, 정보 획득방법 인지, 임신 출산의 선행지식, 자아조절, 정보접근환경이 중재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충족과 불충족을 경험하였다. 또한 임신부들은 임신의 과정동안 정보요구의 변화·발전에 따라, 수용국면, 적응국면, 구체국면, 전환국면을 통과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정보추구의 구조와 과정을 통합하여 임신부의 정보추구행위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실제이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Using Grounded Theory, the present study was to discover structure and process of pregnant women's information seeking experience through identifying concepts and relationships of the experienc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6 participants selected by theoretical sampling. The findings were: 1) Pregnant women's information seeking was caused by Acceptance of Pregnancy, 2)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 seeking was for Maintaining Normalcy to Pregnancy(MNP), 3) MNP occurred in connection with Perceived Anxiety and Desire to Know, 4)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o MNP were related to the Awareness of Ways Acquiring Information, Previous Knowledge, Self-Regulation, and Information Access Environment, 5)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o MNP were Seeking Diagnostic Data of Antenatal Care, Seeking Standard Knowledge, Seeking Experience, and Seeking Emotional Support, 6) As consequences of taking strategies, pregnant women were experienced in Sufficient, or Insufficient, 7) A three-stage process of information seeking was discovered: Comparing, Contextualising, Making sure, 8) In terms of change of information needs during pregnancy, a four-phasic process was discovered: Acceptance Phase, Adjusted Phase, Focusing Phase, and Transitional Phase. Based upon these results, it needs to generate a substantive theory contributed to holistically explain and predict pregnant women'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키워드: 임신부, 정보추구경험, 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 과정, 근거이론, 질적 연구, 실제이론

Pregnant Wome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Experience, Information Seeking Structure, Information Seeking Proces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Substantive Theory

* 성균관대학교 강사(kapskim@dreamwiz.com)

논문접수일자 2005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12월 25일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 연구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정보추구에 관한 이해와 유용한 지식은 현재까지도 미흡한 단계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 추구에 관한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이해는 건강정보의 정보원이나 정보채널의 선호에만 그 연구 관심이 국한되어져 왔기에 건강정보추구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그 심층적 이해는 현재까지도 미흡한 단계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건강정보의 추구는 아직 논의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 추구를 문헌정보학 연구와 실무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헌정보학의 지식개발에서도 건강정보 추구 행태와 그 요구를 밝히는데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추구자의 관점과 경험에서 정보추구의 유발 원인, 맥락, 정보추구의 전략, 정보추구에 따른 결과 등 정보추구의 관련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정보추구의 과정을 밝혀 정보추구에 대한 다측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증진과 지식 축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임신의 맥락에서 건강정보 추구에 관한 연구이다. 임신은 거

의 모든 여성들이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대체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임신은 여성 개인의 일차적인 생리적 변화 이외에도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유발하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전환과정으로 여성의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사 사건의 하나이다.

그러함에도 임신부의 정보 추구 맥락에서, 임신이라는 40주 동안의 생경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임신부들에게 정보란 과연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기여를 하며, 임신부들에게 정보 추구란 어떠한 경험이며, 이들의 정보추구 행위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접근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임신부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임신의 고유 맥락을 반영한 임신부의 정보추구 관련 맥락(context), 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의 총체적인 연구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임신이라는 보편적인 생활사 사건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일상의 건강 정보추구 맥락에서 정보추구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추구해 나아가는지의 정보추구 경험의 구조와 추구의 과정을 밝혀내는데 있다.

또한 이들의 정보추구 구조와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임신부들의 정보추구행위의 이해 증진과 실제에 기반을 둔 중범위이론(mid-range theory)인 임신부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1.3 연구 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은 어떠한가에서 출발한다. 즉, 임신부들의 임신의 맥락에서 어떠한 독특한 맥락이 정보추구를 유발하며, 임신부들이 임신을 경험해 나가면서 직면하는 정보추구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들의 문제해결 노력들은 어떠한 것인가 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부들은 그들의 임신경험과 관련하여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둘째, 임신의 어떤 맥락에서 정보추구가 발생하는가?, 셋째,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보추구의 중심 이벤트는 무엇인가?, 넷째, 임신부들은 의도적 또는 일상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다섯째,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섯째, 이들의 정보추구 과정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1.4 건강정보 추구하고 임신부의 정보추구 선행 연구

1.4.1 건강정보 추구

사람들의 건강정보 추구는 건강의 위기 지각에서 유발되며, 일상적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획득되고 있다. 건강 관련 정보추구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간호학, 보건학 또는 문헌정보학에서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건강정보추구의 연구경향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건강정보 또는 특정 질병에 관한 정보원이나 정보채널의 선호를 조사하거나, 혹은 특정 질환자의 특정 질병의 정보 획득원이나 정보채널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상에서의 건강정보는 주로 일반 대중매체나 구두채널에 의해 획득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서는 인터넷이 강력한 건강 정보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검토한 선행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원이나 정보채널에 관한 연구로는 미국 일반 여성들(Johnson & Meischke 2001; Warner & Procaccino 2004), 아프리카 미국인 노년여성(Gollop 2005),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유입자(Courtright 2005), 미국 일반인들의 암유전학 정보원(Case, Allard & Kelly 2004; Andrews et al. 2005), 미국의 영유아 어머니의 온라인 소아정보원(Bernhardt & Felter 2004)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의학전문가들의 웹상에서의 정보추구(Zhang et al. 2004)에 관한 연구가 있다.

특정 질환자들 대상으로 정보원이나 정보채널을 조사한 연구로는 영국의 여성 폐암환자의 대중매체 정보원(Ress 2000), 아일랜드 암환자(Mills & Davidson 2002)의 정보원, 태평양도 출신 뉴질랜드 유입 여성의 목관련 질환 정보(Sligo & Jameson 2000)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수 있다.

1.4.2 임신부의 정보추구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관련연구는 문헌정보학과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

는 소말리아 임신부의 대인정보원(Davies & Bath 2002), 구성주의 담론분석에 의한 캐나다 쌍생아 임신부의 정보추구 모형(McKenzie 2003)에 대해 논의되었을 뿐이다. 간호학분야에서는 주로 영국 임신부들이 선호하는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원(Jacoby 1988), 영국의 임신부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Levy 1999)와 만성질환을 가진 미국의 임신부들의 위기관리 전략(Corbin 1987)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임신부들의 정보추구와 관련된 개념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임신부의 정보추구 관련 맥락, 구조와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접근은 거의 없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임신부들의 정보추구 경험에 관한 개념과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들의 관련성에 따라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구조와 정보추구 과정을 밝혀내는데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보추구의 구조와 추구과정의 총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임신부들의 정보추구행태의 실체이론을 구축하는 근거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0; 1998)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여기

서 이론개발을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란 질적 자료의 단순한 기술(記述)이 아니라 자료의 해석에 치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론적 표집에 의하여 자료 포화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를 지속적인 비교법에 의해 각 개념들로 분해하고(개방코딩), 이들 개념들의 제 연관성을 밝혀 재조합하고(축코딩), 통합하는(선택코딩)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코딩과정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연구현상과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밝히고, 그 개념간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이론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형성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해 이론적으로 적합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 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의 3개 종합병원(C, S, Y)에 산전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는 임신부들 중에서, 임신 24주 이상의 통상적인 초임부 및 경임부(經妊婦)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임신여성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기관을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로 선택한 것은 다양한 임신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3개 기관으로 분산 선정하는 이유는 한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였다. 주요 연구 장소는 서울 북쪽에 위치한 S 대학교 부속 병원이었으며, 이 병원이 국내 최대의 종합병원이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병원으로서

서울의 서쪽에 있는 Y 대학교 부속병원, 남쪽에 있는 C 대학교 부속병원도 추가하여 순환적으로 방문하면서 참여자들을 면담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임부들을 선정할 이유는 초임부보다 임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으며, 본 연구의 경임부들은 모두 두 번째 임신을 한 16주 이상의 경임부들로서, 자신의 첫 번째 임신 경험과 더불어 현재의 임신경험도 비교하여 제공해 주었다.

2.3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대인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 자신이 중요한 연구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의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선입견, 가치, 신념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재학 중 인접학과에서 '문화기술연구'를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에 관한 학제적 모임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과 근거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였다.

임신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에 대한 비학술적 문헌읽기와 학술적 문헌 읽기를 하였으며, 임신경험이 있는 연구자 주변 인물들에게 임신에 대한 경험들을 청취하였다. 또한, 연구현장인 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2주에 걸쳐 참여 관찰과 간단한 예비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S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부를 위해 개설한 6시간의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2.4 자료수집

2.4.1 연구 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이 개인의 경험을 구술하는 면담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료수집시 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로서 1차 면담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 동시에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뿐 아니라, 연구 참여에 따른 위해요인이 없으며, 면담내용은 녹음되어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필요시 익명으로만 일부 내용이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는 것,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완성 이후에는 모두 폐기된다는 것, 참여자는 질문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 관한 궁금점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참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자료 분석 이후 주요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와 협의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로 정하였으며, 주로 병원의 한적한 로비, 외래대기실,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2.4.2 자료수집 및 면담과정

자료수집은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경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밝혀야 하므로 정보추구에 관한 연속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비

구조적, 회고적, 개방적인 면담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은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추출되는 개념에 따라 표집이 이루어지는 이론적 표집이므로 자료수집은 자료 분석과 연계하여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1-4명)에서는 임신경험을 폭넓게 분포시켜서 정보추구 경험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출현하는 개념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입증할 수 있는 정보추구 경험들을 표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패러다임이 구축된 이후인 3단계에서는 미비하거나 보완할 개념의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면담초기에는 참여자와의 편안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날씨등의 가벼운 일반적인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기본적인 인구학적 자료(임신 주수, 거주지, 연령, 교육정도, 직업, 자녀 수, 등)를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으로 들어갔다. 면담시에는 연구자의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개방형 질문으로 “임신부로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임신에 대해 느끼는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로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참여자의 구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이 진행될수록, 면담 내용이 추가되고 조정되었다. 1차 면담시간은 3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시에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소형 디지털 녹음기(CENIX VR-P345)를 작동시키고,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면담 후에는 관찰 내용을 현장기록노트에 기록하고,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 사항등도 함께 기록하였다. 면담완료 후 즉시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 청취하면서 참여자가 구술한 언어 그대로 전부 옮겨 적고 코딩을 하였다. 선행 인터뷰 자료의 코딩결과는 다음 연구 참여를 수집하고, 면담내용을 조정하는데 적용하였다. 필요시 2차 면담은 연구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면담이후 4 - 6주 이내에 시행하며, 1차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의 보충이나 1차 자료 분석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계속탐구하기 위한 질문이 되었다. 면담자료의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될 때 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의 포화상태는 연구의 복잡성, 동일 참여자에 대한 면담회차, 면담자료의 질, 참여자의 반성적 표현력에 따라 좌우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의 구조와 과정 도출을 위한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분석 단계를 적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현상과 관련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를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개방코딩(Strauss & Corbin 1990, 61)을 수행하였다. 임신부의 정보추구를 구성하는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추구와 관련된 두드러진 사건이나 행동, 생각, 감정, 환경 및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통해 면담내용을 한 줄씩 읽고 분석하는 줄 단위 분석, 문단/문장 분석, 전체자료의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진술을 대표하는 개념들을 도출하고 명명하

었다. 또한 이들 개념들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식별하여 이를 추상화(抽象化)한 상위개념인 하위범주들로 묶고 이를 명명하였으며, 하위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를 발전시켰다. 여기서 범주(categories)란 개념들과 관련 하위범주를 추상화시켜 상위 개념화한 것으로 (Strauss & Corbin 1990, 61), 개개의 관련 현상들을 대표하는 개념이다(Strauss & Corbin 1998, 101).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의 구조와 과정 도출을 위해서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상기의 범주들을 축코딩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구조적인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고, 과정분석을 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96).

경험구조 도출을 위한 패러다임 모형이란 개방코딩으로부터 출현한 정보추구에 관한 범주들을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조건(intervening condition),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consequences)의 관계로 재조합하는 범주의 분석이다(그림 1).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틀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패러다임 모형의 적용 강점은 이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인과모형을 따르고 있어, 어떠한 현상과 결과가 일어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패러다임은 맥락과 중재조건, 그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들 둘러싼 상호작용적인 과정에 연구 강조점을 두고 있으므로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역동적인 인과 및 영향관계와 정보추구 과정을 탐구하는 본 연구에서 충분한 유

용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과정분석은 또한 현상에 관한 반응, 대처, 조절과 관계있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시간의 흐름과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유지되는가를 나타내는 일련의 순차적인 순서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작용/상호작용이 중재적 상황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의 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은 진행적 특성이 있고,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적 과정이며, 주로 국면(phase)이나 단계(stage)로 표기한다(Strauss & Corbin 1990, 143-144).

2.6 연구평가

본 연구의 평가는 Lincoln & Guba(1985, 289-331)가 제시한 질적 연구에 관한 평가기준인 진실성, 적용성, 일관성과 중립성을 연구진행과정에 다음과 같이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첫째, 질적 연구의 진실성은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참여자의 지식과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2명의 참여자에게 면담기록 내용과 분석결과를 보내 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재확인 과정을 수행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성에 해당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했는가, 연구결과가 연구맥락 이외의 상황에도 적용가능한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편안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모집단의 대표성이 아니라 경험의 대표성, 즉 개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신 경험을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양적 연구의 신뢰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문제제기에서 자료수집과정, 분석과정 및 이론의 형성까지 연구전체 과정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개념과 범주명명에 대한 어휘 선택의 적절성을 위해서 필요시에 국어사전과 심리학사전을 참조하였다. 코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Miles & Huberman(1994, 63)이 제시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동의 수/동의의 총수 + 불일치”의 공식으로 구하였으며, 70%가 넘으면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사 및 박사연구학기에 있는 3명의 연구자(간호학 2명, 사회복지학 1명)에게 본 연구의 한 사례의 5쪽 분량의 코딩을 1회 의뢰하여, 73%를 확보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양적연구의 객관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술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동시에 면담자료와 문헌내

용, 자아인식등을 메모하여 내용들을 상호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참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자료의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 까지 면담에 응한 연구 참여는 총 16명이었다. 연구 참여들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의 3개 종합병원(C,S,Y)의 한 산부인과에 산전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는 임신부들 중에서, 임신 24주 이상의 통상적인 초임부(初任婦) 및 16주 이상의 경임부(經妊婦)로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임신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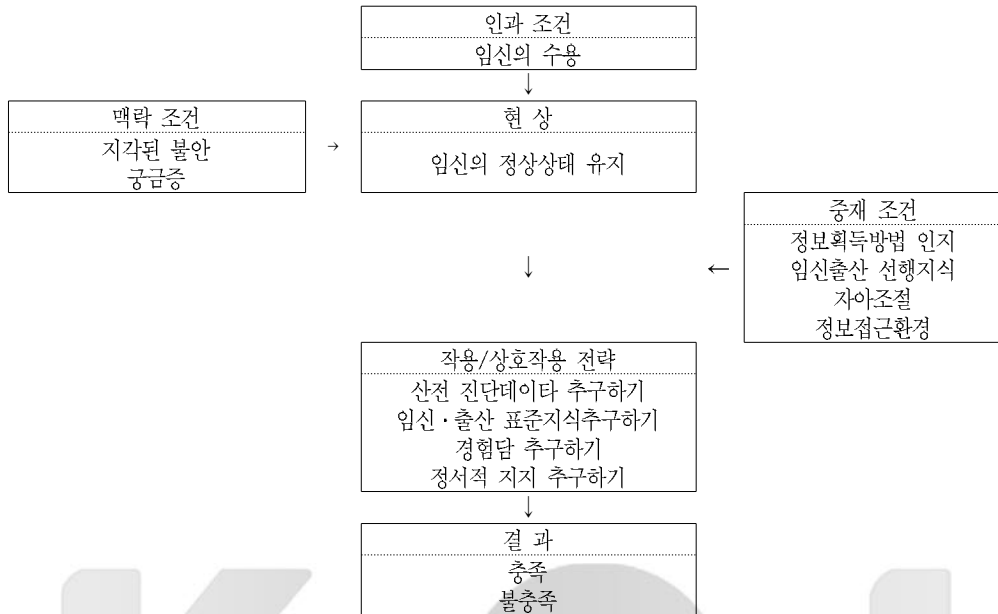
참여자들의 연령은 26세에서 39세 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32세였다. 이중 초임부는 9명, 경임부는 7명이었으며, 면담초기의 임신주수는 16주에서 38주 까지였으며, 평균 임신주수는 31.6주였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5명, 전문대학 졸업이 4명, 대학교 졸업이 6명, 대학원 졸업이 1명으로, 직업은 현재 전업주부가 10명이며, 6명은 취업주부로 직업은 교직원, 보험설계사, 간호사, 회사원,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다.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15명이 서울이었고, 나머지 1명은 경기도 거주자였다.

3.2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의 구조

본 연구는 참여자와의 면담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방코딩의 결과 98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표 1).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조건	임신의 수용	임신 유형	계획된 임신, 예기치 못한 임신, 인위적 임신, 고대하던 임신, 우연한 임신
		임신에 대한 양가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맥락조건	지각된 불안	임신의 기대	정상아, 건강한 출산, 남아선호
	궁금증	임신의 위기 지각	임덧, 유산 징후, 과거 병력의 영향, 임신 합병증, 고령 임신, 조산 징후, 출산통
현상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	임신·출산에 관한 궁금증	태고, 태아의 주수별 발육과정, 몸의 변화, 몸의 증세, 영양관리 및 음식물 섭취, 임신 생활전반, 출산방법, 수유방법, 육아
		태아 발육의 정상 여부 확인	태아의 정상 발육 여부에 집착함
증제조건	정보 획득방법 인지	정보 획득방법 인지 경로	정보 획득 방법을 미리 생각하지 못함 우연히 무료책자 얻음, 자발적인 인터넷 검색함
	임신·출산의 선행지식	임신·출산의 선행지식 여부	임신·출산의 선행지식이 없어 막막함, 임신의 경험을 이용함
	자이조절	임신에 몰입 안 함	편한 마음 가짐, 임신에 대한 막연한 낙관, 신앙에 의지함, 직장/학업 병행, 기분 전환
	정보접근환경	임신에 대한 자신감	평이한 임신증세, 평소 음주흡연 안함
작용/상호작용전략	산전 진단데이터 추구하기	산전진료 가기	추정하기- 임신부의 건강상태 검사하기 태아의 발육 상태 진단받기 태아 상태, 물어보기 몸 증세, 대처방안, 물어보기 영양관리 및 음식물 섭취
	임신·출산의 표준지식 추구하기	책자에서 찾아보기	찾아보기-임신과정, 찾아보기 태고, 찾아보기 태아의 발육과정, 찾아보기-몸의 변화와 증세, 찾아보기 영양관리 및 음식물 섭취, 찾아보기 유의할 점, 찾아보기-출산방법, 찾아보기-육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찾아보기-태아의 발육 과정, 찾아보기 유의할 점, 찾아보기 몸의 증세, 찾아보기-유산 징후, 찾아보기-출산방법
		산전 교육프로그램 참여하기 대중매체(TV, 신문)보기	권유에 의해 참여 함, 자발적으로 참여 함 우연하게 보게 됨, 권유에 의해 보게 됨, 의도적으로 찾아 봄
	경험담 추구하기	오프라인에서 경험담 물어보기	물어보기, 듣기, 알려주기, 공유하기 영양관리 및 음식물 섭취, 물어보기, 듣기, 알려주기, 공유하기 임신정보, 물어보기 듣기 알려주기 공유하기 몸의 증세, 물어보기, 듣기, 알려주기, 공유하기 출산, 물어보기, 듣기, 알려주기, 공유하기 양수검사, 물어보기, 듣기, 알려주기, 공유하기 물품구입, 물어보기, 듣기, 알려주기, 공유하기-정보원
		인터넷에서 경험담 찾아보기	찾아보기, 질문하기 몸의 증세, 찾아보기, 질문하기 영양관리 및 음식물 섭취, 찾아보기 질문하기 생활전반 행동관리, 찾아보기 질문하기 태아 상태, 찾아보기, 질문하기 양수검사, 찾아보기, 질문하기 유산 징후, 찾아보기, 질문하기-출산, 찾아보기, 질문하기-육아, 찾아보기 질문하기-물품구입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	임신의 불안과 궁금증의 공유	임신경험의 동질감, 임신에 대한 관심 표명, 격려
결과	충족	안도감	불안감 해소, 안심, 성취감
		지식 확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됨, 기존의 오류지식 수정 함
		대처방안 획득	조심하게 됨, 구체적인 대비책을 알게 됨, 차후변화에 마음의준비를 함
	불충족	불안 지속	해결 지체, 해결 미흡
	재시도	다른 정보원에서 다시 확인함	
	포기	체념	
	방치	무시, 정보추구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함	



〈그림 1〉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이들 14개의 범주들을 축코딩을 통해 재조합하여 〈그림 1〉과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 앞서 패러다임의 적용 강점에 대해 언급한 바대로, 이러한 패러다임은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역동적인 인과 및 영향관계를 밝혀주고 있어,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였다.

3.2.1 인과 조건

인과 조건은 어떤 현상의 발생이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0, 96).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의 수용’이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의 수용’은 임신의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양가감정으로 수용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참여자의

임신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임신소식 들었을 때는, 들었을 때는 그냥 좀 약간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깐, 분명 임신해야 한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래도 약간 뭐랄까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겪는 거니까 더 당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생각이나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구,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참여자 11).

3.2.2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0, 96).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부들

이 정보를 추구하면서 경험하는 일련의 행동은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현상을 중심축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란 다양한 정보의 추구를 통하여 자신과 태아와 상태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임신의 제 발달과정을 잘 따르고 있는가의 여부였으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상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참여자 6),

“임신해서 정상이다 아니다 아하 내 주수에 맞구나 아닌거 같다 그런 거는”(참여자 12).

3.2.3 맥락 조건

맥락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다(Strauss & Corbin 1990, 96).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불안'과 '궁금증'이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맥락 조건으로 밝혀졌다.

임신은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적 상태이지만, 임신이라는 특수한 맥락과 생경한 경험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임신의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불안을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은 임신부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때로는 임신기간 동안 막연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신 기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임신의 위기를 지각' 할수록 불안의 지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가장 건강하게 태어날건가, 이것 손가락 발가락 다 다섯 개인가 예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다 필요없구 무조건 건강하게 낳는게 최고예요.”(참여자 5)

“유산기가 있으면 아기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 많이 하지요.”(참여자 11)

'궁금증'이란 참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생경한 경험들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몰라서 답답해 하는 마음과 그것을 꼭 알아야 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주로 몸의 이상이, 몸의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주로 궁금한 게 많은데.”(참여자 11)

3.2.4 중재 조건

중재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맥락으로서 특정한 맥락 안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조장하거나 제어하도록 작용한다(Strauss & Corbin 1990, 96).

본 연구의 근거자료 분석 결과, '정보획득방법 인지', '임신·출산의 선행지식', '자아 조절', '정보접근환경'이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조건으로 밝혀졌다.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식이나 정보를 찾는 방법은 몰랐는데], 그 때부터 인터넷 같은데서 찾기 시작했지요.”(참여자 11)

“첫 번째 임신에서는 흥분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자를 자주 찾아보았지만, 두 번째에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돼요.”(참여자 16)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떤 하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병행하다보니까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 같아요.”(참여자 8)

“애나면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똑같은 입장의, 같은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인터넷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오니까”(참여자 1)

3.2.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거나 일상적인 행위이다 (Strauss & Corbin 1990, 97).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현상에 대처하고,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산전 진단데이터 추구하기', '표준 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로 밝혀졌다.

'산전 진단데이터'란 산전진료에서의 검사와 측정의 결과인 수치데이터로, 임신부 개인의 임신상태의 정상여부를 유지하고, 확인하는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로서 추구하였다.

“아기가 정상이라고 아기 팔, 다리 정밀 초음파한거 보여주고 지금은 아기가 자리 잡은 거랑, 아기 몸무게랑”(참여자 13)

참여자들은 또한 주수별 태아의 발육 과정, 몸의 변화 및 증세, 영양관리 및 음식물 섭취, 의료관리, 출산 등 산전 및 산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의학지식들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임신·출산의 표준지식'들은 참여자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한 표준적 지식이자 규범적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 지식들은 임신출산의 성문화되고 정형화된, 일반화된 지식으로서 참여임신부들이 자신의 임신상태나 증세가 정상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판단자료가 되는 표준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적 규칙으로서의 지식이었다.

“임신 40주 하는 것을 보고 그 주에 주의할 것, 영양”(참여자 13),

“책자에서 주로 인제 아이가, 36주되면 아기가 어떻게 논다, 얼마큼 크고, 몸무게가 어떻게, 엄마의 몸은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이 36주가 되면 36주에서 이번에 준비할 것이 뭐 뭐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참여자 15)

참여자들은 임신이 진행될수록 임신의 여러 징후와 증세의 원인과 대처 방법 등 자신의 개별화된 임신맥락에서 발생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출산에 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추구하였다. 이들 '경험담'은 임신경험자들이 임신 출산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체험하고, 간접적 경험이 보태어진 체험 정보로서 각 경험자의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경

험에서 비롯된 감정이나 느낌, 체험적 지식, 조언이 포함된 정보였다.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나와 똑같은 입장의, 같은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몸의 이상이 있을 때라든가, 음식을 섭취해도 이 음식을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먹어도 되는지 이런 궁금한 거는 바로 병원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오니깐”(참여자 1)

‘정서적 지지’는 참여자와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영향력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가 내재된 감정적 지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제공되는 정보 자체의 정확성, 권위, 신뢰성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참여 임신부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임신에 대한 긍정감과 자신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엄마가 안 계시면 시댁 보다는 친정이 가깝잖아요, 울 때도 말하기가 좀 그렇구 그러니까 그냥 모든 면에서 엄마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요, 뭐 육체적으로나, 엄만, 엄마, 엄마 나 몸이 이런데, 엄마는 나가졌을 때 이리러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었는데도 엄마는 엄만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할까봐 다 그런 거야 나도 너 가졌을 때 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말씀해 주시지요”(참여자 1)

3.2.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Strauss & Corbin 1990, 97).

본 연구의 근거자료 분석 결과, ‘임신의 정상 상태 유지’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산전 진단테이타 추구하기’, ‘표준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충족’과 ‘불 충족’으로 나타났다.

‘충족’이란 획득한 정보의 이용과 활용(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의 정보추구의 과정)이라는 운동(불충분 상태를 채워가는 움직임)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 단계 높은 국면인 안도감을 느끼거나, 지식 확대를 하거나, 대처 방안을 획득하는 충족이라는 상태로 상향전이 됨을 의미한다.

“안심이 되요, 정보를 받으면 내게 해당이 되면, 정보를 알게 되면 편안해져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내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경험 한 것이라 안심이 되고 편안해져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참여자 16)

‘불 충족’이란 참여자들은 해결이 지체되거나 획득한 정보가 미흡하여 다시 불안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획득한 현재의 정보로서는 무언가 부족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정보추구를 체념하여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획득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의심스러워 다른 정보원에서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또는 정보가 더 필요는 하지만, 자신의 정보구 자체를 무시하거나, 정보추구 외에 다른 대

안을 모색하였다.

“그. 답을 못 찾았을 때에는 혼자서 불안에 떨면서 며칠을 견뎌야 되거든요. 병원에 다음 진료에 오기 까지”(참여자 1)

“책자의 내용이 부족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지요”(참여자 16)

“더 이상 알아보지는 않았고, 그럴러니 하고 말았어요.”(참여자 9)

“정보를 원한다기 보다는, 신뢰하는 정보라기 보다는 일단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마다 저희는 기도를 하구요.”(참여자 10).

3.3 정보추구의 과정

과정분석은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시간의 흐름과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혹은 그대로 지속되는가를 보여주는 일련의 발전 순서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165). 과정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구조와 연결되는 것이다. 즉 시간 경과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조건에서의 변화, 그 변화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의 반응, 그 작용/상호작용의 반응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 이러한 결과가 제 조건의 일부가 되어 다음의 작용/상호작용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하위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1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임신의 맥락에서 정보를 추구하면서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 현상에 반응, 대처, 조절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시간의 흐름과 중재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임신의 수용’의 인과 조건과 ‘지각된 불안’, ‘궁금증’의 맥락 조건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산전 진단데이터 추구하기’, ‘표준 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와 같은 작용/상호작용 하는 정보추구 전략을 취하였으며, 그 과정은 ‘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의 3 단계로 나타났다. 각 과정은 대체로 순차적인 과정으로 식별되었으며, ‘정보획득방법 인지’, ‘임신출산의 선행지식’, ‘자아조절’, ‘정보접근환경’의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

3.3.1 비교하기

참여자들은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임신의 진행상태를 비교 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비교하기’과정은 산전 진단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태아의 발육상태나 몸의 상태, 자신의 생경하고도 미묘한 몸의 징후나 증세, 자신의 몸의 변화 등을 획득한 표준지식이나 경험담과 동질성, 유사성,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하고 식별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하기’는 임신의 정보추구 전략의 독특함을 반영한 정보추구의 가장 본질적인 과정으로, 임신부들의 정보추구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과정으로 식별되었다.

“중반기 때는, 특별하게 이번에 한 게 없는데, 중반기 때는. 처음에는 그 책보고 우리애가 우리 아이에게는 뭐가 생기고 뭐가 생겼겠구나. 몸의

변화랑 비교 같은 거 해보고 그랬구요, 중반에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아! 중반에는 배 나온 거만 체크했어요, 하하. 어느 만큼 불러지는지 그 다음에 왜, 배가 배도 커지고 기슴도 커지고 그러면서 트는지 안트는지,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4개월 넘어가면서 애기 태동! 그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참여자 8)

이러한 ‘비교하기’ 과정을 통해 식별된 징후, 증세, 또는 상태의 동질성, 유사점, 공통점은 참여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으며, 차이점은 불안감이나 새로운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여 정보 추구를 재시도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괜히 걱정 되고, 다른 임신부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면 또 걱정이 돼요.”(참여자 16)

3.3.2 맥락화 하기

‘비교하기’의 과정을 거친 ‘맥락화 하기’의 과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과정으로서, 참여자들이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임신 맥락에 근거하여 획득된 정보의 관련성, 적합성, 유용성, 신뢰성을 선별하고 적절성을 판별하는 과정이다.

일례로 참여자들은 병원으로부터 특별한 의료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의료진의 권유에 일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주변의 여러 정보원에서 표준지식이나 경험담들을 획득하여, 자신의 개별적인 임신의 상황에서 비교해 보고, 획득한 정보를 관련성, 적합성, 유용성, 신뢰성을 종합화하여 자신의 개별적 맥락에

알맞은 적절한 정보를 수용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맥락화 하기’는 ‘정보 선별하기’와 ‘판정하기’의 세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선별하기’의 과정은 참여자들이 참여자 자신의 상태, 상황이나 여건등 자신의 개별적인 임신의 맥락에 근거하여 획득한 정보의 관련성, 적합성, 유용성, 신뢰성을 선별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요, 책같은 것 봐서 저한테 해당 되는 거면 자세히 읽으며, 해당 안 되면 넘기구” (참여자 2)

“책자도 도움이 되는데요, 책자도 참 내용을 보면은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란 책에 따라서 어떤 글 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다른 책 보면 다른 식으로 말해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하기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은 그냥” (참여자 12)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제가 봐서 아 그냥 그래 참고, 참고를 하는 거죠 완전히, 물론 반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참고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기준은] 사이트나 그 책자같은 거의 신뢰같은거, 그냥. 요즘에는 책들이 많아 서 주위에서 추천받아 하나 빌려서 보는 것 정도로 봤고, 인터넷을 제가 찾아서 사이트 제 마음에 드는거 하나 찾아서 봤거든요, 이상한 사이트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자주 많이 보는 사이트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보는 일단 제가 믿고 봐요.”(참여자 11)

‘맥락화 하기’의 또 다른 측면은 정보수용을 위한 ‘판정하기’ 과정이었다. ‘판정하기’란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임신 맥락에 근거하여, 많은 정보에 휘둘림 없이 획득된 정보 중 자신의 개별 맥락에 알맞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정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때 획득된 정보가 보편적인 지식 내지는 개별적 특정성이 강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별적 맥락성에 알맞는, 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아무래도 궁금할 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떠다니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 출산 준비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뭐, 뭐는 꼭 필요하다 어떤 분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결정을 해야지요, 일단 제가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구요 출산 준비물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샀는데, 좀 다들 좋다고 해서 샀는데 후회되는 것도 있고요,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참여자 9)

“정보는 거기 나오는 정보들은 주로 보편적인 거구,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떤 통계학적인 거잖아요, 주로 이렇더라하는 것을 갖고, 주로 보편적인거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주로 통계학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나하고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 정보가 자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걸러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든지 나하고 다 맞아 떨어지거나 내가 임신을 하고 임신 몇 주가 되었

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나와 있는 그런 통계학적인 게 나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않더라는 얘기지요”(참여자 8)

3.3.3 확인하기

참여 임신부들은 자신의 임신 상황과 획득한 정보의 동질성, 유사성, 공통점, 차이점을 상호 비교해 보고, 자신의 개별적인 맥락에 근거하여 획득한 정보의 관련성, 적합성, 신뢰성을 선별하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맥락화 과정을 거쳐 비로써 자신의 임신상태인 몸의 상태와 태아의 상태가 틀림없이 정상인가를 확인하거나 선별 정보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확인하기’ 과정을 수행하였다.

‘확인하기’ 과정은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보추구의 마지막 과정으로 임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선별한 정보를 근거로 실제 임신의 맥락에서 그 정보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확인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의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괜히 걱정하고, 다른 임신부들이 하지 않는것을 내가 하면 또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임신부 자신의 몸과 태아의 상황을 획득한 정보와 비교하여 임신의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임신의 정상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자 중 일부는 정상이란 이분법적 상태가 아니라, 태어나 몸의 진행상태가 사례별로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정상의 오차범위에 드는가를 판단하여 정상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자신의 개별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선별 정보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였다.

“자기 경험한거를 이야기 해줘요, 거의 상태가 비슷하면 어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니까, 그냥 처음에는 한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고 맨 처음에는 3개월까지는 조산이 많고 그때까지는 조금 불안하고, 그 이후에는 불안한 것이 없다. 병원도 가고”(참여자 13)

“시누이는 경험도 있고, 인제 주로 산부인과 쪽에 계셨으니, 들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병원 담당하시니까 의사선생님들하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 경험들 같은 거를 많이 이야기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피부에 좀 뭐가 나는데 뭘 연고를 발라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발라도 되는데 굳이 심하지 않으면 바르지 말아라, 그 정도, 그러면 제가 자제를 하지요, 바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도”(참여자 11)

3.4 임신과정에서의 정보추구 국면 분석

또한 근거자료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 목적에 의해 밝혀진 정보추구 과정과는 별개로 참여자들은 임신과정이 진행되면서 시간흐름의 변화에 따라 정보요구가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요구의 변화·발전의 단계에 따른 정보추구의 국면을 도출하였다.

앞서의 정보추구의 과정분석이 임신과정중에 발생하는 정보추구에 관한 횡단적 과정분석이라면 정보추구의 국면분석은 임신의 전체 진행 과정에서의 정보요구의 변화에 따라 종단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임신의 전체 과정에서 정보요구의 변화에 따른 정보추구의 종단적 국면은 ‘임신의 수용국면’, ‘적응국면’, ‘구체국면’, ‘전환국면’으로 나타났다.

3.4.1 임신의 수용 국면

임신의 ‘수용국면’은 참여자들이 임신의 사실을 병원 진단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신부로서 정보 추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보추구에 직면하는 단계이다. 이때 참여자들은 임신출산의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막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정보의 획득방법을 미리 생각하지 못해 막막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병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무료로 제공해주는 책자가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며, 일부 임신부들은 일상의 정보추구 경험에 따라 인터넷에서 의도적 탐색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부터 인터넷 같은데서 찾기 시작했지요, 책도 아, 봐야겠고, 정보도 알아야 되겠다. 그냥 책도, 아기도 어떻게 생성되고 뭐 아기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니까, 그런 정보로 라도 알아서, 얻어서 보면은 궁금증이 덜 하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찾는 방법은 몰랐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고”(참여자 11).

3.4.2 적응 국면

‘적응 국면’은 임신을 수용한 이후 참여자들은 임신부로서의 본격적인 정보추구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임신 출산에 관한 표준지식을 담고있는 책자에서 또는 인터넷 사이

트에서 임신출산에 관한 전체 개요적인 틀이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임신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를 추구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산전 진료에 참여하여 산전 진단데이터를 추구하기 시작하며, 경험적 정보보다는 임신에 관한 표준지식을 선호하였다.

“책자 보면 대강의 흐름이 나오니까. 임신부터 임신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고 몇 주수에는 뭐가 생기고, 그 흐름을 파악해요”(참여자 13)

3.4.3 구체 국면

‘구체 국면’은 임신 진행이 구체화 되어감에 참여자들이 몸의 변화와 징후, 증세에 민감해져 원인과 대처방법 등 임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은 태아의 정상발육에 집착하게 되며, 몸의 주수별 변화와 영양관리 등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해 임신에 관한 표준적 정보 이외에도 구체적 경험정보를 추구하였다. 지속적으로 산전진료에 참여하여 자신의 임신진행의 사실데이터인 산전 진단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임신진행의 정상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제 임신상황을 표준지식과 비교하여, 임신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알고자 하였다.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궁금점은 특히, 오프라인, 온라인 임신경험자들의 경험담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정보가 내재된 정서적 지지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 단계는 궁금증과 불안이 빈번하여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보추구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비교하기’, ‘맥락화 하기’, ‘확인하기’의 정보추구과정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3.4.4 전환 국면

‘전환 국면’은 임신의 구체적인 정보추구에서 출산과 육아로의 구체적인 정보추구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참여자들은 임신의 중반기를 넘어서 출산이 임박해지면,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사 이외에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 자연스럽게 출산법이나 출산통, 수유방법, 육아에 대한 구체적 정보추구로 정보요구가 전환되었다. ‘비교하기’, ‘맥락화 하기’, ‘확인하기’의 정보추구과정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4. 논의

임신부의 정보추구경험의 구조와 과정에 관한 본 연구 결과를 임신부의 정보추구 맥락, 정보추구의 현상, 정보추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 정보추구의 결과, 정보추구 과정의 5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4.1 임신부의 정보추구 맥락

일반적으로 정보추구의 유발 원인이나 맥락은 기존 지식과의 “격차”(Dervin 1983), “불확실성”(Kuhlthau 1991), “지식의 애매한 상태”(Belkin 1980), 개인의 인지적 구조가 과제에 부적합할 때의 “개념적 부조화”(Ford 1980), 개인 혹은 개인의 업무관련 생활에서 “불확실성의 존재 인식”(Krikelas 1983), 위기의 지각,

불충분, 관심, 호기심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맥락적 요인은 '지각된 불안'과 '궁금증'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임신경험의 생경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기존 지식과의 격차, 불확실성, 지식의 애매한 상태와도 동일한 관련성을 갖는다.

4.2 정보추구의 현상

임신의 과정동안 임신부들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적 정보추구 전략을 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생각이나 이벤트는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임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였다. 본 연구에서 '임신의 정상상태'란 자신과 태아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임신의 제 발달 과정을 착실하게 잘 따르고 있는가의 여부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상상태 유지'라는 개념은 임신부들의 정보추구 경험을 설명하는 현상으로 도출되었지만, 비단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의 경험 상태에서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현상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한 설명력 있는 개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3 정보추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신부들의 의도적이고 일상적인 정보추구 행위들은 주로 산부인과의 산전진단 가기, 관련책자 찾아보기,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주변 경험자에게 경험담 물어보기, 영리/ 비영리의 임신출산의 교육프로그램 참가하기,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 시청하기, 신문보기 등 이었다.

임신부들의 이러한 정보추구행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추상화하기 위한 착안은 근거자료를 통해 임신부들이 각 정보추구행위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과 임신에 기여하는 이들 정보 유형들의 기능들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들이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 추구한 네가지의 정보유형들을 임신의 맥락에서 작용/상호작용적인 정보추구 전략으로 식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추구 전략으로서 이들 정보 유형들의 특색과 기능들을 구명하였으며, 이들 다양한 정보유형이 임신의 과정동안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첫 번째 유형인, '산전 진단데이터'는 자신의 임신 상태와 태아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로서 임신진행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추구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임신 출산의 '표준지식'은 임신 출산에 관해 사회적으로 축적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학지식으로서, 모든 임신부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한 표준적 지식이자 규범적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유형인, '경험담'은 임신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개별화된 임신맥락에서 발생하는 보다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불안과 궁금증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경험자들이 교류하는 임신출산에 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이다.

네 번째 유형인 '정서적 지지'는 참여자와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영향력 있는 관계에 있는 주변사람들로 부터 임신에 대한 정보가

내재된 감정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으로, 임신부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임신에 대한 긍정감과 자신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들 추구된 정보유형은 임신 출산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인 지식이란 임신 진행에 대한 객관적인 경향 파악에 도움이 되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임신에 관한 개별화된 사실적 수치데이터인 '산전 진단데이터'와 임신 출산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지식'을 포함한다. 또한 임신이 진행되면서 임신부들은 보다 자신의 개별화된 맥락에 알 맞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추구하는데, 이는 경험자들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로서 이들은 주관적인 특성을 가진 정보들이었다. 이처럼 임신부들은 임신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신부들의 정보추구 전략으로서 도출된 '진단데이터', '표준지식', '경험담', '정서적 지지'의 정보유형은 비단 임신부들의 정보추구 전략으로써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의 경험 맥락에서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전략으로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신부들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정보 유형은 일반적인 정보추구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유형과는 차별성이 있는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정보유형은 건강정보의 맥락을 반영한 '건강정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건강정보 추구맥락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건강 정보의 유형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임신출산(Davies & Bath 2002) 또는 건강정보 추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보 획득원으로서의 주요 정보원이나 정보채널을 밝히는 데 연구 강조점을 두어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임신부의 정보추구 경험 연구를 통해 건강정보 추구자에 의해 전략적으로 추구되는 독특한 건강정보 유형과, 이 정보들이 건강정보 추구의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밝혀낸 것은 본 연구의 소박한 성과이다.

4.4 정보추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임신부들은 정보추구의 결과 '불안'과 '궁금증'이 유발된 낮은 국면에서 '안도감', '지식 확대', '대처방안 획득'이라는 '충족'의 높은 국면으로 도달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불안 지속', '재시도', '포기', '방치'라는 '불충족'의 국면으로도 진행되는 소극적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정보추구의 결과는 인지적인 변화와 행동적인 변화를 유발한다(Lenz 1985, 66; Kuhlthau 1991). 물론 정보추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는 활발한 정보추구의 결과로 획득된 것도 있으며, 탐색의 과정동안 수동적으로 또는 우연하게 획득된 정보도 있다. 정보추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는 새롭게 형성되거나 변화된 의견, 태도, 신념이며, 자아, 타자, 혹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혹은 정서적 상태의 변화도 포함된다. 행동적 변화는 이러한 인지적 변화를 수용하여 직간접적인 행위로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신부들이 정보추구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는 '대처 방안 획득', '지식 확대'이며, 정서적 변화는 '안도감', '불안 지속'이며,

행동적 변화는 '재시도', '포기', '방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uhlthau(1991:1993a:1993b)의 정보탐색과정 모형에서 논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변화와 동일선상에서 논의 할 수 있다.

4.5 정보추구 과정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임신부들의 '비교하기', '맥락화 하기', '확인하기'의 정보추구과정은 일상적인 업무나 학습의 과제맥락에서의 정보추구와는 다소 다른 독특한 정보추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과제맥락에서의 정보추구와는 달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징후나 증세'를 분명하게 가진 궁금증과 불안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며, 임신의 맥락 뿐 아니라, 건강정보 추구 과정의 특색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교하기' 과정은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임신부의 정보추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독특한 행위이며, 핵심적인 과정으로 밝혀졌다.

'맥락화 하기'는 임신부들이 정보와의 상호작용적 과정에서 자신의 개별적인 맥락에 근거로 하여 획득정보의 질적인 평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개별적 맥락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임신부 관련 의사결정 연구(Levy 1999)나 위기 관리 연구(Corbin 1987) 결과와도 유사하다. 즉, 영국 임신부들의 임신기 동안의 의사결정은 자신과 가족들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감 유지하기'(Levy 1999)이며 미국의 만성질환을 가진 임신부들의 위기관리 전략은 '보호적 지배하기'(Corbin 1987)라는 것도 본 연구

의 '맥락화 하기'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 될 수 있다.

'확인하기' 과정은 임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선별한 정보를 실제 임신의 맥락에서 그 정보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과정의 종료점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부들의 정보추구경험과 관련된 제 개념 및 이들 개념들 간의 관계구명을 통하여 임신부의 정보추구와 관련된 구조와 정보추구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임신부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이해 증진과 정보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임신부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실체이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론적 표집에 의하여 서울의 3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부속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통상적인 16명의 임신부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개방코딩에서는 근거자료의 범주화를,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임신부의 정보추구의 유발원인은 '임신의 수용'으로 나타났다. 임신부들은 '지각된 불안'과 '궁금증'의 맥락에서 유발되는 '임신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해 '산전 진단테이

타 추구하기', '표준지식 추구하기', '경험담 추구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하기'의 작용/상호작용적 전략을 취하였으며, '비교하기', '맥락화하기', '확인하기'의 정보추구의 과정들을 거쳐 갔다. 이때, '정보획득방법 인지', '임신·출산의 선행지식', '자아조절', '정보접근환경'이 중재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충족'과 '불충족'을 경험하였다. 또한 임신부들은 임신의 과정동안 정보요구의 변화 발전에 따라, '수용국면', '적응국면', '구체국면', '전환국면'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건강정보 추구에 관해 처음 시도되는 연구이다. 특히 개념도출과 범주화를 통하여 임신 맥락의 정보추구와 관련된 고유한 감정, 상황, 행위들을 밝혀냄으로써, 임신의 맥락에서 임신부들의 정보추구 행위에 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문헌정보학에서 비교적 새로운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양적 연구에서나 여타의 질적 연구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정보추구 경험과 관련된 정보추구의 패러다임적 구조와 경험 과정, 맥락적 요인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다.

셋째, 최근의 국내 정보추구 연구의 경향은 주로 일반인, 대학생, 재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상 및 과제맥락에서의 정보원과 정보채널의 선호를 밝히는 기술(記述)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현상의 기술

적 차원보다는 한국적 정보추구 현상을 설명하는 '실제에 기반한 모형과 이론'에 근접해 가는 연구 과정이라는 점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추구의 거시모형 또는 거대이론(grand theory), 혹은 공식이론(formal theory)은 높은 추상성을 가지고 인간의 정보추구행위를 간략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본 연구결과인 정보추구의 구조와 과정을 근거로 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정보추구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실체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체이론의 개발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정보추구 행위의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므로, 정보서비스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체이론의 개발이 궁극적으로 정보추구의 공식이론 도출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임신부의 정보추구에 관한 구성 개념들과 과정들이 다른 여타의 건강정보추구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한가, 혹은 다른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건강정보추구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접근이 이루어지고, 그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맥락에서의 건강정보추구 행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강 정보추구에 관한 공식이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갑선. 2005.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연구 경향. 『情報管理學會誌』, 22(4): 235-254.
- Andrews, J.E., et al. 2005. "Intention to seek information on cancer genetics." *Information Research*, 10(4): paper 238. [cited 2005.7.19].
 <<http://InformationR.net/ir/10-4/paper238.html>>.
- Baker, Lynda M. 1996. "A study of the nature of information needed by women with multiplesclerosi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1) : 67-81.
- Belkin, Nicholas J.1980. "Anomalous states of knowledge as a basis for information retrieval."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5: 133-143.
- Bernhardt, J.M, and Felter E.M. 2004. "On-line Pediatric Information Seeking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Results From a Qualitative Study Using Focus Group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search*, 6(1):e7. [cited2005.5.22].
 <<http://www.jmir.org/2004/1/e5/>>.
- Case, Donald O., David Johnson, and James E. Andrews. 2004. "From two-step flow to the Internet: The changing array of sources for genetics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8): 660-669.
- Corbin, Juliet. M. 1987. "Women's perceptions and management of a pregnancy complicated by chronic illness." *Health care of Women International*, 8: 317-337.
- Courtright, Christina. 2005. "Health information-seeking among Latino newcomers: An exploratory study." *Information Research*, 10(2): paper 224. [cited 2005.1.25].
 <<http://InformationR.net/ir/10-2/paper224.html>>.
- Davies, Myfanwy M. and Peter A. Bath. 2002. "Interpersonal sources of health and maternity information for Somali women living in the UK." *Journal of Documentation*, 58(3): 302-318.
- Degner, Lesley and Jeffrey Sloan.1992. "Decision making during serious illness: What role do patients really want to play?."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5(9): 941-950.
- Glaser, Barney G. and Anselm L.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 Gollop, Claudia J. 1997. "Health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nd older African America women." *Bull Med Libr Assoc.*, 85(2): 141-146.

- Johnson, J. David, and Hendrika Meischke. 2001. "Women's preferences for cancer information from specific communication channel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6): 742-755.
- Jacoby, A. 1988. "Mothers' views about information and advice in pregnancy and childbirth: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Midwifery*, 4: 103-110.
- Krikelas, J. 1983.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Patterns and concepts." *Drexel Library Quarterly*, 19: 5-20.
- Kuhlthau, Carol Collier.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 Kuhlthau, Carol Collier. 1993a.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Kuhlthau, C. 1993b.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339-355.
- Lenz, Elizabeth R. 1985. "Information seeking: A component of client decisions and health behavior." *Advances in Nursing Science*, 6(3): 59-72.
- Levy, Valerie. 1999. "Maintaining equilibrium: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processes involved when women make informed choices during pregnancy." *Midwifery*, 15: 109-119.
- Marcella, Rita and Graeme Baxter. 1999. "The information needs and the information behaviour of a national sample of the population in the United Kingdom, with special reference to needs related to citizenship." *Journal of Documentation*, 55(2): 159-183.
- Mckenzie, Pamela J. 2003. "A model of information practices in accounts of everyday-life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59(1): 19-40.
- Miles, Matthew B. and A. Michael Huberman.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Mills, Moyra E. and Robin Davidson, 2002. "Cancer patients' sources of information: Use and quality issues." *Psycho-Oncology*, 11: 371-378.
- Ress, Charlotte E. and Peter A. Bath. 2000. "Mass media sources for breast cancer information: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women with the disease." *Journal of Documentation*, 56(3): 235-249.
- Savolainen, Reijo.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 259-294.
- Sligo, F.X. and Anna M. Jameson. 2000. "The knowledge - behavior gap in use of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the Amer-*

- 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1(9):858-869.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Newbury Park, Calif. : Sage.
- Warner, Dorothy and J. Drew Procaccino. 2004. "Toward wellness: Women seeking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8): 709-730.
- Wilson, T.D. 1981. "On user studies and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Documentation*, 37(1): 3-15.
- Zhang, Dongming et al, 2004. "Use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 a medical web portal environment: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8): 670-684.



к с і